

7.6일 동작구수방사 사업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.

< 기자회견 내용 (경실련, 7.6) >

- ◆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
 -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 채당 6.2억, 총 1631억 추정
 -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여 막대한 수익 챙김

□ 경실련이 주장한 ‘정부가 동작구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다’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- 동작구수방사 부지 사업은 공공분양주택 263호 외, 군관사 208호 및 행복주택 85호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, 분양주택의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또한, LH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탁사업시행자로 해당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위탁수수료*를 지급 받으나, 행복주택 85호는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으로, LH가 102억원의 수익은 취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익적인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* 위탁보수 수수료율 : 개발보수(개발원금의 3%) + 분양보수(분양금액의 1%)

□ 동작구 수방사의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*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시세 대비 80% 이하로 산정된 것으로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가 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또한 최종 분양가는 향후 본청약 시 분양가상한제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.

*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= 택지비(감평가) + 건축비(기본형건축비) + 가산비

-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의 꿈과 희망 실현을 목표로 과거 대비 3배 이상 규모인 뉴:홈(공공분양 50만호)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으며, 뉴:홈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505)
		담당자	사무관	장이슬 (044-201-4441)